

2025년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명절 가정예배



대한예수교
장도회

안양제일교회



추석 명절 가정예배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찬송가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 족 대 표

성 경 봉 독 골 3:12~17 다 같 이

-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감사의 계절,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며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넘어, 우리의 생명과 호흡,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2.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화합의 터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공동체이며,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섬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입니다. 이 명절을 통해 우리는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서로에게 베푸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야 합니다. 갈등과 오해가 있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복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3. 믿음의 유산은 다음세대에 전하는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시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며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또 단순한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흔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주 기 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 다 갈 이

예배를 마친 후 식사 또는 다과를 함께 나누며 교제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봅시다.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은혜였는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누어봅시다.

예배의 진행

1. 추석 명절 예배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2. 먼저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시고, 가족 모두가 가장을 중심으로 함께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3.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잘 권면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합니다.
4.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5. 음식은 미리 준비하였다가 예배를 마치신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 좋습니다.
6. 추석 명절 가정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7. 예배는 가장 또는 가족 중에 연장자가 인도하도록 합니다.
8. 대표기도, 성경봉독은 가족 중에 담당자를 따로 정해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